

사회적 행동의 구조적 분석(SASB) 모형에서의 성격병리와 대인관계 패턴*

이 은 영 황 순 택[†] 조 윤 진
신촌세브란스 병원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성격병리의 정도와 대인관계 패턴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DSM-IV의 10개 성격장애에서의 대인관계 패턴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대학생들(n=485)을 대상으로 성격병리 및 DSM-IV 성격장애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성격장애질문지(PDQ-4+)를 실시하고, 대인관계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SASB 검사를 실시하였다. PDQ-4+의 총점수와 SASB 검사에서 측정되는 24개의 군집점수와의 상관을 구한 결과 몇몇 행동유형에서 성격장애척도의 총점수와 높은 상관이 나타났다. 성격병리의 정도가 심할수록 타인을 비난, 공격, 무시하는 행동, 부루퉁하고 적대적이고 단절된 반응, 자기공격/거부, 자기방치/무시의 행동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PDQ-4+에서 측정되는 10개의 성격장애 각각의 점수와 SASB 검사에서 측정되는 24개의 군집점수 간의 상관을 구하였다. 또한, 여기서 얻어진 상관점수를 가시화하기 위해 거리 환산점수로 전환한 후 다차원 척도(MDS)로 나타내었다. 그 결과 연극성 성격장애를 제외한 대부분의 성격장애는 타인을 공격, 무시, 비난하는 행동이 높고, 타인을 긍정/이해하고 양육/보호하며 적극적 사랑을 보이는 행동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군 성격장애는 타인으로부터 분리되는 경향이 높고, B군 성격장애는 타인에 대한 공격성과 자율성이 높고, C군 성격장애는 타인에 대한 공격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장애들을 변별해주는 고유한 행동패턴은 SASB 모델에서 자율성 차원에 배열되는 방임, 분리, 순종, 자율, 자기 통제였다. 이 결과는 자율성이 성격장애들 간을 변별해 주는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고, 후속연구를 제안하였다.

주요어 : 성격장애, 대인관계 행동, SASB

* 본 연구는 2007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th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n 2007).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황순택 /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Tel : 043) 261-2187 / Fax : 043) 271-1713 / E-mail : hstpsy@chungbuk.ac.kr

성격과 성격장애를 대인관계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분류하려는 시도는 Sullivan(1953)의 대인관계 모델, Leary(1957)의 대인관계 원형(Interpersonal Circumplex; 이하 IPC) 모델, Benjamin(1993)의 사회적 행동의 구조적 분석(Structural Analysis of Social Behavior; 이하 SASB) 모델 등으로 발전되었다.

IPC 모델(Leary, 1957)에서는 인간의 행동을 친애성과 통제성 두 차원 상에서의 위치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 모델에서 사랑과 적대의 행동이 친애성의 연속선상에 배열되고 순종과 통제의 행동이 통제성의 연속선상에 배열되어 이들의 위치에 따라 다양한 대인관계 행동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SASB 모델(Benjamin, 1974, 1993)은 IPC 모델에서 발전된 모델로, Schaefer의 부모 양육행동 연구에서 영향을 받았다. Schaefer(1965)는 어머니의 행동을 자율-통제 대 애정-거부의 차원으로 기술하는 가설적인 원형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Benjamin(1974)은 SASB 모델을 통해 인간의 행동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친애성과 자율성(또는 독립성)의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병리적 행동은 친애성 차원에서는 극단적인 사랑이나 적대를 보이거나, 자율성 차원에서는 타인으로부터의 극단적인 분리나 순종의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정상인의 경우에는 극단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부분적이고 일시적으로만 나타난다. 이에 비해 성격장애의 경우 극단적인 행동이 비교적 고정되어 있고 빈번하게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난다. 편집성 성격장애와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친애성 차원에서 사랑의 반대 극에 위치한 적대적 행동을 보일 수 있고, 분열성 성격장애와 회피성 성격장애는 자율성 차원에서 순종과 반대 극에 위치한

극단적인 분리 행동을 보일 수 있으며, 경계성, 연극성, 그리고 의존성 성격장애는 극단적으로 타인과 분리되지 못하고 의존적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SASB 모델에서는 대인관계 행동과 자기개념이 각 성격장애마다 다른 패턴을 보인다고 가정하였다(Benjamin, 1996a). 예를 들어, 경계성 성격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소망하고 ‘무시(유기)’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다. 그들은 타인, 즉 양육자로부터 ‘보호’를 받으면 ‘신뢰’하며 그 보상으로 ‘적극적 사랑’을 준다. 그러나 이러한 패턴은 매우 불안정하여 조금이라도 타인이 ‘무시’하는 행동을 알아차리게 되면 그들은 다시 ‘보호’받기 위해 타인을 ‘통제’하고 ‘비난’하며 ‘공격’하는 패턴을 보인다. 이러한 태도는 ‘자기공격’과 ‘자기무시’의 태도를 수반한다. 자해 행동은 사랑하는 사람이나 양육자가 ‘순종’하고 동시에 ‘보호’하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역할을 한다. 양육자나 배우자가 보호해주고 돌봐줄수록 경계성 성격장애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를 ‘통제’하면서도 ‘신뢰’하는 극단적인 행동을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경계성 성격장애가 있는 사람의 ‘비난’하는 행동에 배우자가 ‘부루통’하고 ‘자기비난’하는 반응을 보이면 더욱 크게 나타난다. 회피성 성격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의 ‘적극적 사랑’과 ‘보호’를 바라며 타인으로부터의 ‘비난’과 ‘무시’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한다. 회피성 성격장애에서는 적대, 단절, 자기비난의 행동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타인의 공격이나 굴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 의견을 표현하지 않고 ‘부루통’해지며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며 ‘자기통제’를 한다. 경우에 따라 통제를 잃거나 비난하는 행동을 보이면 타인은

회피성 성격장애가 있는 사람을 더욱 거부하고 무시하는 행동을 하게 되며 이에 따라 그들은 타인들로부터 더욱 철수를 하게 된다. 반면에 ‘적극적 사랑’과 ‘보호’ 받고 싶은 소망은 대인관계에서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소수의 몇몇 사람들에게만 극단적으로 충성하는 행동으로 이어진다(Benjamin, 1996b).

IPC 모델과 비교해 볼 때 SASB 모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먼저, SASB 모델은 행동에 대한 이론적 가설을 다차원적인 측정 모델로 구현하였다는 점에서 독자성이 있다(Erickson & Pincus, 2005). IPC 모델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일관되게 보이는 나의 행동유형에 초점을 둔 반면, SASB 모델은 타인을 대하는 나의 행동유형 뿐 아니라 타인의 행동에 대한 나의 반응적 행동도 함께 설명해준다. 즉, 타인의 행동을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고, 지각하고, 형성된 타인 지각의 틀에서 상보적으로 나타내는 반응적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지각 또는 자기개념 측면을 분석할 수 있으며, 또한, 기분 상태(기분이 좋을 때와 나쁠 때)에 따라 이러한 행동유형 및 자기개념이 어떻게 변하는지 비교할 수 있다.

이 모델에서 인간의 행동을 정의하는 두 차원 중 하나는 ‘우호’와 ‘적대’의 친애성 차원으로 IPC 모델과 동일하지만 다른 한 차원은 IPC 모델과 다르게 설정하였다. IPC 모델에서는 ‘통제’의 반대 극단을 ‘복종’으로 정의하였으나 SASB 모델에서는 ‘통제’의 반대 개념으로 ‘자율성(또는 독립성)’을 상정하였다. 자율성(autonomy)은 역동심리학에서 정상과 이상을 구별하고 정의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대상관계 이론에서 Mahler(1975)가 제시한 발달과정 중 분리-개별화(Separation-

Individuation) 단계는 이전에 자기 내면과 어머니에게 관심을 기울이다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확장하여 환경을 탐색하는 단계이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에 대한 불안 반응을 보이다가 점차 행동 영역을 넓혀 나가면서 자율 능력과 전능감을 경험하게 된다. 만일 초기 발달과정에서 부모로부터의 분리-개별화 시도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면 SASB 모델의 독립성(자율성) 차원에서 부모의 통제에서 자율적으로 분화된 패턴을 보일 것이다. 대인관계 어려움이 종종 애착과 자율성간의 부조화로 드러난다(Pilkonis, Kim, Proietti, & Barkham, 1996)는 점에서 자율성 차원이 이러한 설명을 잘 뒷받침해준다.

SASB 모델은 IPC 모델에서처럼 ‘타인에 대한 나의 행동’ 측면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내가 타인에게 행동하는’ 측면과 ‘타인의 행동에 내가 반응하는’ 측면, ‘내가 나에게 행동하는’ 측면 모두에서 친애성과 자율성의 정도를 측정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다른 모델에는 없는 ‘자기개념’을 대인관계에서의 사회적 개념과 관련지어 살펴볼 수 있게 하였다. 중요한 타인들과의 경험을 통해 자기개념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이 모델은 대인관계 행동의 설명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밖에, SASB 모델에서는 차원적 설명에서 양 극단의 상반된 행동 뿐 아니라 타인의 행동에 뒤따르는 나의 반응이 원형모델의 같은 위치에서 상호 보완하여 나타난다는 ‘상보성’ 원칙과, 나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가 성인기에 까지 영향을 주어 유사한 태도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유사성’ 원칙을 적용하였다. SASB 모델은 애착(attachment)과 지각(perception) 간의 관계를 민감하게 평가해준다는 점에서 어린적 관계가 성인기가 된 후 사회적 관계에 어

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 줄 수 있다.

SASB 모델과 그 측정도구인 SASB 검사(SASB Intrex)는 다양한 연구에서 양호한 신뢰도와 내용타당도, 안면타당도, 예언타당도, 구성타당도가 확인되었다(Benjamin, 1974, 1984, 1994, 1995; Lorr & Strack, 1999; Pincus, 1998; Pincus, Newes, Dickinson, & Ruiz, 1998). 또한, SASB 는 다양한 임상적 연구 및 측정 도구로써 그 유용성이 입증되었다. 정신과 환자 집단과 정상인 집단의 자기지각과 타인지각 비교(Alpher, 1996; Benjamin & Wonderlich, 1994; Humes & Humphrey, 1994; Iciyama et al., 1996; Klein et al., 2001; Ruiz, Pincus, & Bedics, 1999; Wonderlich, Klein, & Council, 1996; Wonderlich, & Swift, 1990), 정신과 장애 환자들의 유년기 부모와의 관계(Humes & Humphrey, 1994; Humphrey, 1986, 1989), 치료자-환자 관계에서 보이는 사회적 지각의 평가(Erickson & Pincus, 2005) 등의 연구에서 이 모델이 사용되었다. 그밖에 치료장면에서의 사례 개념화와 치료계획 수립(Benjamin, 1984, 1997; Florsheim, Henry, & Benjamin, 1996c; Pincus & Ruiz, 1997), 치료과정과 결과의 평가(Henry, Schacht, & Strupp, 1986, 1990), 심리치료 수련과 슈퍼비전의 평가(Henry, Schacht, Strupp, Butler, & Binder, 1993) 등의 연구에서도 이 모델이 사용되었다.

SASB 모델에서는 성격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은 대부분 대인관계와 관련되어 있고 대인관계를 통해 드러난다고 가정한다(Benjamin, 1993, 1996a). 대인관계 기능의 손상은 성격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가장 빈번하게 호소하는 영역이며, 인지와 정동의 불안정도 대인적 상황의 영향으로 형성되거나 대인적 상황에 긴밀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의

관심은 성격병리와 관련된 대인관계 행동패턴을 알아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SASB 모델을 이용하여 1) 성격병리의 정도와 대인관계 패턴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하고, 2) DSM-IV에 제시된 10 개 성격장애에서의 대인관계 패턴을 SASB 모델을 통해 비교하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 대전, 청주 소재 대학생 485명에게 SASB 검사와 성격장애의 평가를 위한 자기보고형 척도(PDQ-4+)를 실시하였다. 총 응답자 485명 중 응답의 성실성이 의심되는 27명의 자료를 제외한 458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분석된 응답자들의 평균연령은 22.3세였으며, 남학생은 182명(40%), 여학생은 272명(60%) 이었다.

측정도구

SASB 검사(SASB Intrex)

이 검사는 타인, 자기, 내사(introjection) 각각의 측면에서 보이는 대인관계 행동, 반응 유형 및 자기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Benjamin (1996a)이 개발한 검사이다. 원저자인 Benjamin 으로부터 본 검사의 연구용 사용을 승인받았다.

이 검사는 문항 수에 따라 간략형, 중간형, 완결형의 세 종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용으로 추천되는 중간형을 사용하였다. 중간형은 총 352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질문지는 나와 타인이 기분이 좋을 때와 기분이 나쁠

때의 상호관계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0점) ~ ‘항상 그렇다’(10점)의 11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SASB 검사에 대한 국내의 경험적 연구는 아직까지 드물지만, 간략형 질문지에 대한 박지희(2005)의 연구에서 한 달 간격 검사-재검사 상관관계수가 0.79($SD=0.20$)로 신뢰롭게 나타났고, 김수임(2002)의 연구에서 SASB 간략형 질문지를 이용한 경계성 성격집단과 비교 집단 간의 내사측면 차이 연구에서 성격집단을 유의하게 변별해 낸 바 있어 타당도가 일부 입증되었다.

SASB 검사의 질문지 유형은 총 12가지가 되는데 개별 연구에서의 설정에 따라서 일부 또는 모두를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6가지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연구 결과 분석은 1), 2), 4), 6)에 중점을 두어 해석하였다.

- 1)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나에게
- 2) 내가 기분이 나쁠 때 나에게
- 3) 타인이 기분이 좋을 때 나에게
- 4) 이 관계에서 나는 타인에게
- 5) 타인이 기분이 나쁠 때 나에게
- 6) 이 관계에서 나는 타인에게

1), 2)를 제외한 모든 질문지는 각각 타인에 대한 행동(action)과 타인의 행동에 대한 나의 반응(reaction)을 포함한다. SASB 검사를 통해 측정하는 대인관계 행동과 자기개념은 모두 친애성 차원과 자율성 차원에서 채점된다. 예를 들어, 타인이 기분 좋을 때 “애기를 충분히 들어주며,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문항에 높은 점수를 주면 친애성 차원에서는 우호적 태도,

자율성 차원에서는 자율적인 태도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친애성 차원과 자율성 차원에서 개인의 위치를 수량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 24개 군집점수를 종속변인으로 사용하였다. SASB 모델에서 군집은 친애성과 자율성 차원에서 보일 수 있는 가능한 행동패턴들을 요약한 것이다. 24개의 군집점수는 각각의 군집에 해당되는 문항들의 평균점수로 산출된다. 예를 들어, 내가 나에게 대하는 행동에서 ‘자기통제’에 해당되는 문항 “일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 나 자신을 철저히 조절하고 감시한다”, “완벽하게 하기 위해 일을 할 때 다른 무엇보다도 정확성을 중요시 한다”에서 평정된 점수들의 평균이 ‘자기통제’의 점수가 된다.

성격장애검사(PDQ-4)

성격장애검사는 DSM-IV의 진단 기준에 맞추어 10개의 성격장애를 평가하기 위해 Hyler (1987)가 제작한 Personality Diagnostic Questionnaire를 김동인과 최말례(2000)가 번안하여 타당도를 입증한 한국판 자기보고형 성격장애 검사이다. 자기보고식 진위형 문항으로 총 99 문항이 구성되었으며 모든 문항에서 ‘예’라는 대답이 병적 반응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예/아니오의 이분법적 판단에서는 ‘아니오’에 해당될 만큼 문항의 내용을 부분적으로만 가지고 있고 병적 수준의 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측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점 척도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

연구 과제 1)을 위해 성격장애 척도(PDQ-4+)의 총 점수와 SASB 검사에서 측정되는 24개의

군집점수와 Pearson 적률상관을 구하였다. 연구과제 2)를 위해 PDQ-4+에서 측정되는 10개의 성격장애 각각의 점수와 SASB 검사에서 측정되는 24개의 군집점수와 Pearson 적률상관을 구하였다. 여기서 얻어진 상관점수는 단일차원으로 표현된 요인들간의 관계이므로 가시화를 위해 요인들 상관 정도에 따른 상대적 위치를 거리 환산 공식으로 전환하여 다차원 척도(MDS)를 이용하여 좌표와 윤곽으로 나타내었다. 군집점수는 요강(Benjamin, 2000)에 따라 SASB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해 산출하였다.

결 과

성격병리의 정도와 대인관계 패턴 간의 관계

성격병리 정도와 대인관계 패턴 간의 관계

를 규명하기 위해 성격장애 척도(PDQ- 4+)의 총 점수와 SASB 검사에서 측정되는 24개의 군집점수와 Pearson 적률상관을 구하였다. 각 군집은 SASB 모형에서 친애성과 자율성 차원의 위치에 따라 보일 수 있는 행동유형을 24개로 분류한 것이다. 군집점수가 높다는 것은 예를 들어, 친애성 차원에서 사랑이나 적대의 양 극단으로 치우쳐 있는 정도가 높은 것이고, 다시 말하면 극단적인 행동 유형을 보이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은 성격병리의 정도와 타인과 나의 기분이 좋을 때 타인, 자기, 내사 각각의 측면에서 보이는 24개의 군집점수와 상관을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격장애척도의 총점수가 높아짐에 따라 많은 행동 유형에서 높은 정적 또는 부적 상관이 관찰되었다. 성격장애가 심할수록 타인을 비난, 공격, 무시하는 행동이 더욱 뚜렷해지고, 타인의 행

표 1. 성격장애척도 총점수와 군집점수의 상관: 타인의 기분과 나의 기분이 좋을 때(나쁠 때)

행 동 ¹⁾	PDQ 총점수	반 응 ²⁾	PDQ 총점수	내 사 ³⁾	PDQ ⁴⁾ 총점수
방 입	-.10*(-.09*)	분 리	.03(.13**)	자기자율	.01(.03)
긍정/이해	-.17**(-.22**)	개 방	-.21**(-.23**)	자기긍정	-.14**(-.18**)
적극적 사랑	-.20**(-.24**)	반응적 사랑	-.14**(-.20**)	적극적 자기사랑	-.17**(-.19**)
양육/보호	-.21**(-.23**)	신뢰/의지	-.27**(-.27**)	자기보호	-.13**(-.12**)
감시/통제	-.14**(-.18**)	순 종	-.04(-.20**)	자기통제	-.04(.01)
비 난	.25**(.35**)	부루통합	.29**(.32**)	자기비난	.16**(.22**)
공 격	.30**(.37**)	적 대	.22**(.34**)	자기공격/거부	.42**(.33**)
무 시	.30**(.33**)	단 절	.27**(.35**)	자기방치/무시	.39**(.10**)

* $p < .05$, ** $p < .01$

1) 행동: 타인에 대한 나의 행동

2) 반응: 타인의 행동에 대한 나의 반응

3) 내사: 나 자신에 대한 태도

4) PDQ: 성격장애척도

동에 대해 부루통하고 적대적이고 단절된 반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내적 측면에서는 성격장애가 심할수록 자신의 기분이 좋을 때조차도 자기공격/거부, 자기방치/무시의 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병리의 정도와 타인과 나의 기분이 나쁠 때 타인, 자기, 내사 각각의 측면에서 보이는 표 1에 제시된 24개의 군집점수와의 상관에서 볼 수 있듯이 타인의 기분과 나의 기분이 나쁠 때에도 대부분의 행동유형에서 성격장애 정도와 높은 상관을 보였다. 성격장애의 점수가 클수록 타인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무시하는 행동,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부루통하고 적대적이고 단절된 반응이 증가하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비난하고 공격하거나 방치하고 무시하는 행동이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타인에 대한 방임적 행동, 긍정/이해, 적극적 사랑, 양육/보호의 행동은 약해지고, 타인으로부터 분리되는 반응이 증가하며, 타인에게 개방하고 사랑하고 신뢰/의지하는 반응은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격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기분이 나쁠 때는 자기공격과 적극적 자기사랑, 자기보호의 태도가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DSM-IV 성격장애에서 보이는 대인관계 패턴

먼저, 성격장애들 간의 대인관계 행동패턴을 비교하기 위해 각 성격장애척도 점수와 SASB에서 측정된 군집점수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고 유의도 검증을 하였으며, 가시적 비교를 위해 얻어진 상관계수 값들을 거리 공식으로 환산하여 다차원 척도(MDS; Multidimensional Scaling)로 나타내었다. MDS 도면에서 변인들끼리 거리가 가까울수록 관련 행동을 높게 나

타내고 멀리 떨어질수록 관련 행동을 약하게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타인의 기분이 좋을 때 타인에 대한 나의 행동(action). 표 2와 그림 1에 제시된 것처럼 연극성 성격장애를 제외한 대부분의 성격장애는 타인에게 공격하고 무시, 비난하는 행동이 높게 나타나며 타인을 긍정/이해하고 양육/보호하며 적극적 사랑을 보이는 행동이 낮다. 반사회성 성격장애와 경계성 성격장애는 타인에 대한 공격(타인의 상처를 고려하지 않고 인정사정 보지 않고 공격함)과 무시(상대방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돌보지 않거나 배려하지 않음)의 행동이 가장 높다. 자기애적 성격장애는 타인에 대한 비난(상대방의 방식이 잘못되었다 지적하고 깎아내리고 처벌함)의 행동이 다른 성격장애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난다. 반면에 분열성 성격장애는 타인에 대한 적극적 사랑이 모든 성격장애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고, 의존성 성격장애는 타인에 대한 방임(크게 걱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자유롭게 내버려두며 하고 싶은 대로 놓아둠) 행동이 다른 성격장애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회피성 성격장애와 의존성 성격장애는 타인에 대한 감시/통제(모든 일을 책임지고 하며, 상대방은 이에 따르게 함) 행동이 다른 성격장애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연극성 성격장애는 다른 성격장애들과 뚜렷하게 다른 양상을 보였다. 즉, 타인에 대한 적극적 사랑(상대방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유쾌하고 친절하고 정답게 맞이함)과 긍정/이해, 양육/보호의 행동이 다른 성격장애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타인의 기분이 나빠진 관계에서 내가 타

인에게 하는 행동. 타인의 기분이 나빠진 관계에서 내가 타인에게 하는 행동(표 2, 그림 1)의 경우 대부분의 성격장애에서 타인을 공격, 무시, 비난하는 행동을 보이며 타인을 긍정/이해, 사랑, 양육/보호, 감시/통제 하는 행동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사회성과 경계성 성격장애는 타인의 공격과 무시, 비난의 행동이 다른 성격장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계성 성격장애는 다른 성격장애에 비해 타인에 대한 방임(크게 걱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자유롭게 내버려두는), 긍정/이해(의견이 달라도 상대방을 이해하는 행동), 적극적 사랑(상대방을 따뜻하게 맞이하곤 유쾌하고 친절하고 정답게 대해주는 행동), 양육/보호(친절하게 상대방을 가르쳐주고 보호해주고 돌봐

주는 행동) 하는 행동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계성 성격장애는 타인의 기분이 좋을 때와 나쁠 때의 행동패턴이 가장 크게 변하는 경향이 있었다.

타인의 기분이 좋을 때 타인의 행동에 대한 나의 반응(reaction). 타인의 기분이 좋을 때 타인의 행동에 대한 나의 반응의 경우(표 3, 그림 2), 대부분의 성격장애에서 상대방에 대한 적대, 부루통함, 단절된 반응을 보이며 상대방을 신뢰/의지하거나 사랑하고 개방/표현하는 반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사회성 성격장애와 경계성 성격장애는 다른 성격장애에 비해 타인의 행동에 대해 부루통한 반응(상대방의 요청에 대해 화를 내며 성의 없이

표 2. 성격장애 척도점수와 군집점수의 상관: 타인의 기분이 좋을 때(나쁠 때) 타인에 대한 나의 행동

행동	편집성	분열성	분열형	반사회성	경계성	연극성	자기애	회피성	의존성	강박성
방임	-.07 (-.06)	-.04 (.00)	.01 (.00)	-.05 (-.08)	-.08 (-.14**)	-.04 (-.05)	-.03 (-.06)	-.08 (-.07)	-.12** (-.09)	-.04 (.01)
긍정/이해	-.11* (-.15**)	-.21** (-.16**)	-.06 (-.14**)	-.16** (-.17**)	-.19** (-.23**)	.08 (-.03)	-.07 (-.11*)	-.16** (-.19**)	-.10* (-.12**)	-.08 (-.12**)
적극적 사랑	-.13** (-.19**)	-.28** (-.14**)	-.16** (-.16**)	-.20** (-.14**)	-.15** (-.22**)	.17* (-.02)	-.08 (-.11*)	-.18** (-.21**)	-.06 (-.11*)	-.10* (-.10*)
양육/보호	-.14** (-.17**)	-.20** (-.17**)	-.13** (-.15**)	-.16** (-.17**)	-.21** (-.23**)	.06 (-.01)	-.08 (-.08)	-.21** (-.19**)	-.14** (-.15**)	-.07 (-.08)
감시/통제	-.09 (-.17**)	-.15** (-.12*)	-.05 (-.10*)	-.07 (-.06)	-.10* (-.18**)	.08 (.05)	.03 (-.01)	-.22** (-.23**)	-.17** (-.16**)	-.01 (-.03)
비난	.15** (.27**)	.23** (.20**)	.19** (.25**)	.27** (.27**)	.22** (.27**)	.05 (.13**)	.28** (.28**)	.12** (.27**)	.09 (.21**)	.13** (.18**)
공격	.19** (.26**)	.25** (.21**)	.21** (.27**)	.29** (.34**)	.27** (.32**)	.06 (.14**)	.25** (.29**)	.18** (.23**)	.15** (.23**)	.16** (.21**)
무시	.14** (.25**)	.30** (.23**)	.21** (.23**)	.30** (.28**)	.25** (.26**)	.04 (.09*)	.22** (.23**)	.21** (.25**)	.15** (.18**)	.15** (.16**)

* p <.05, ** p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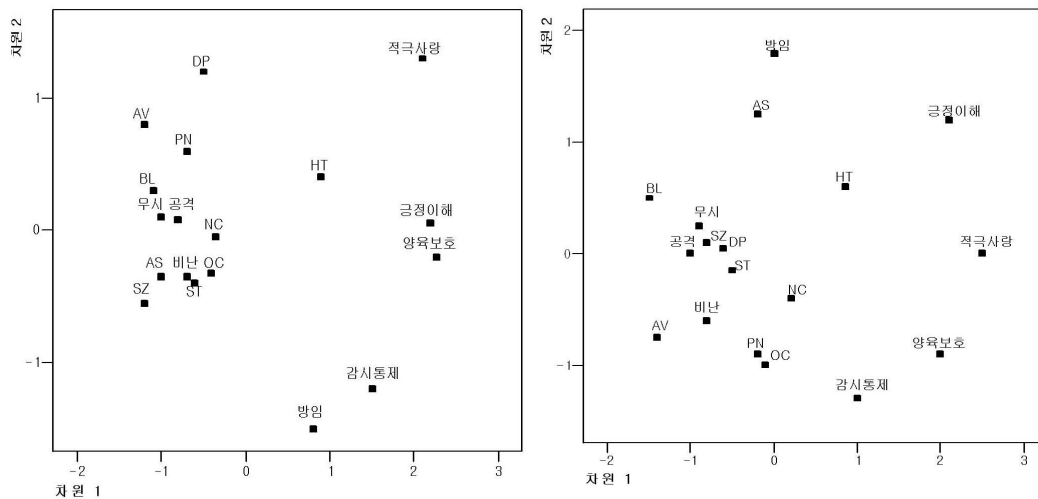


그림 1. 성격장애점수와 타인에 대한 나의 행동점수의 다차원 척도: 타인의 기분이 좋을 때(좌)와 나쁠 때(우)
(차원 1과 차원 2는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좌표상의 상대적 거리로 배열하기 위해 임의로 표기한 것
이며 각각의 수치는 통계적 속성을 갖고 있지 않음)
PN: 편집성 SZ: 분열성 ST: 분열형 AS: 반사회성 BL: 경계성 HT: 연극성 NC: 자기애
AV: 회피성 DP: 의존성 OC: 강박성

해주는 반응)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사회성 성격장애와 분열성 성격장애에서 상대방에게 적대적인(상대방을 무척 싫어해 멀리 떨어져 있으려 하는) 반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박성 성격장애는 타인으로부터의 분리(상대방과 관련시키지 않고, 나만의 방식을 택하는) 반응이 다른 성격장애에 비해 가장 많고, 분열성과 분열형 성격장애도 다른 성격장애에 비해 타인으로부터의 분리된 반응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존성 성격장애는 타인으로부터 분리가 가장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성격장애와 차이를 보였다. 분열성 성격장애는 다른 성격장애에 비해 상대방에 대한 신뢰/의지(상대방을 신뢰하여 의견을 경청하고 제안을 받아들이는) 반응과 사랑(상대방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반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성격장애에 비해 연극성 성격장애에서는 타인에게 반응적 사랑(상대방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을 가장 많이 보이고, 신뢰/의지하고 순종하는 반응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의 기분이 나빠진 관계에서 타인의 행동에 대한 나의 반응. 타인의 기분이 나쁠 때 편집성, 분열성, 분열형, 자기애적, 그리고 강박성 성격장애는 모두 타인으로부터 분리되는 반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그림 2). 반사회성과 경계성 성격장애는 타인의 행동에 부루통한 반응을 많이 보이고 개방/표현된 반응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계성 성격장애는 타인에 대한 반응적 사랑과 순종의 반응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회피성 성격장애는 타인에 대한 적대(상대방을 싫

표 3. 성격장애척도 점수와 군집점수의 상관: 타인의 기분이 좋을 때(나쁠 때) 타인의 행동에 대한 나의 반응

반응	편집성	분열성	분열형	반사회성	경계성	연극성	자기애	회피성	의존성	강박성
분리	.01 (.16**)	.15** (.17**)	.15** (.18**)	.06 (.04)	.02 (.00)	-.06 (.04)	.08 (.17**)	-.06 (.08)	-.19** (-.01)	.16** (.18**)
개방	-.15** (-.20**)	-.20** (-.12**)	-.12* (-.14**)	-.19** (-.15**)	-.19** (-.26**)	.03 (-.05)	-.08 (-.09)	-.18** (-.19**)	-.18** (-.15**)	-.02 (-.05)
반응적 사랑	-.11* (-.16**)	-.27** (-.19**)	-.12* (-.16**)	-.10* (-.11*)	-.09 (-.18**)	.14** (-.02)	-.06 (-.08)	-.15** (-.17**)	-.06 (-.06)	-.07 (-.09*)
신뢰/의지	-.15** (-.17**)	-.27** (-.17**)	-.20** (-.19**)	-.20** (-.18**)	-.23** (-.23**)	.03 (-.06)	-.16** (-.17**)	-.23** (-.24**)	-.14** (-.13**)	-.13** (-.14**)
순종	-.06 (-.14**)	-.09 (-.15**)	-.05 (-.15**)	-.10* (-.12*)	-.03 (-.19**)	.07 (-.03)	-.05 (-.10*)	-.02 (-.15**)	.05 (-.08)	.00 (-.11*)
부루통합	.19** (.27**)	.21** (.22**)	.19** (.21**)	.25** (.28**)	.25** (.28**)	.01 (.09)	.21** (.20**)	.22** (.22**)	.19** (.19**)	.15** (.15**)
적대와 움츠림	.13** (.25**)	.25** (.26**)	.18** (.22**)	.25** (.25**)	.15** (.26**)	-.01 (.08)	.11* (.21**)	.18** (.27**)	.12* (.17**)	.13** (.20**)
단절	.16** (.26**)	.31** (.24**)	.22** (.25**)	.23** (.22**)	.19** (.26**)	-.04 (.10*)	.17** (.23**)	.23** (.30**)	.15** (.22**)	.11* (.29**)

* $p < .05$, ** $p < .01$

어해 멀리 떨어져 있으려는)와 단절(마음의 문을 닫고 혼자만의 세계에 머무는) 반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타인을 신뢰/의지하는 반응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극성 성격장애는 타인의 기분이 좋은 관계에서 보이던 반응적 사랑이 기분이 나빠진 관계에서는 덜 나타나고 단절되는 반응이 나타나 기분이 좋을 때와 나쁠 때 행동패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나 자신에 대한 태도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나 자신에 대한 태도(표 4, 그림 3)는 대부분의 성격장애에서 자기를 공격하고 방치/무시하는 행동이 빈번하고, 자기사랑과 자기긍정의 태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계성, 분열성, 그리고 회피성 성격장애는 자기공격성(파멸시켜버리고 싶을 만큼 내 자신이 싫은 태도)이 가장 높고, 분열형, 분열성, 경계성, 그리고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자기방치/무시(나를 잘 돌보지 않고 현실 속의 나를 망각하고 비현실적인 공상 속으로 빠져드는)의 태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박성과 분열형 성격장애는 자기비난(나의 잘못이나 열등한 부분에 대해 꾸짖고 비난하는)의 행동이 높게 나타났으며, 강박성 성격장애는 다른 성격장애에 비해 자기통제(일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 나 자신을 철저히 조절하고 감시하는)의 태도가 강해 다른 성격장애와 차이를 보였다. 반사회성과 연극성 성격장애는 자율(무엇이든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고민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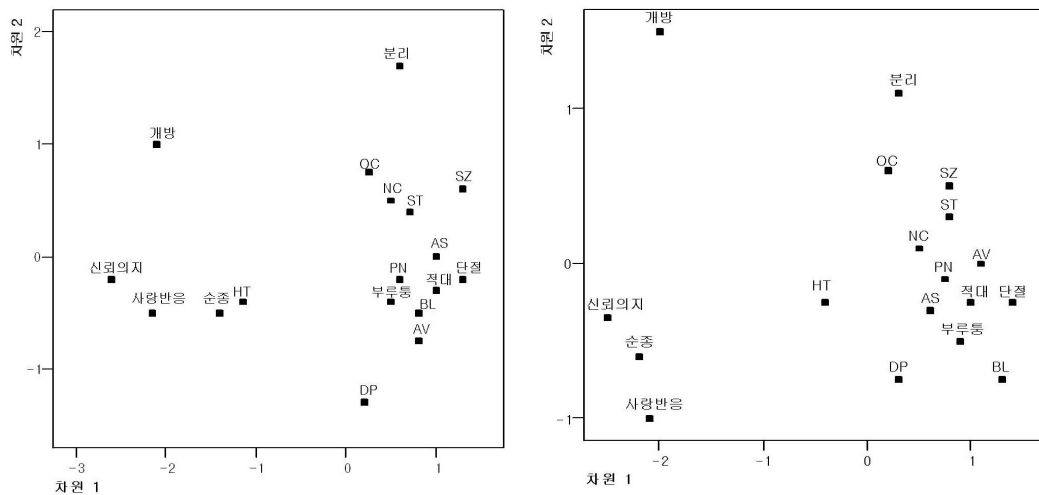


그림 2. 성격장애점수와 타인에 대한 나의 반응 점수의 다차원 척도: 타인의 기분이 좋을 때(좌)와 나쁠 때(우)
(차원 1과 차원 2는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좌표상의 상대적 거리로 배열하기 위해 임의로 표기한 것
이며 각각의 수치는 통계적 속성을 갖고 있지 않음)
PN: 편집성 SZ: 분열성 ST: 분열형 AS: 반사회성 BL: 경계성 HT: 연극성 NC: 자기애
AV: 회피성 DP: 의존성 OC: 강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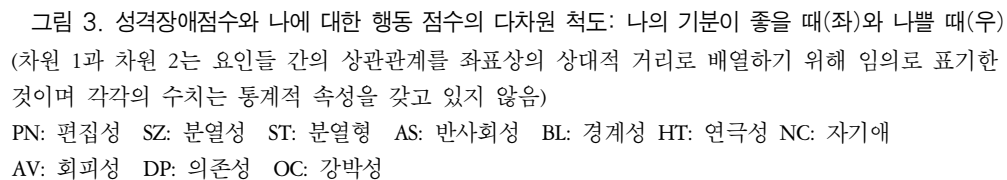
지 않고 그때그때 하며 나중의 일을 걱정하지 않는)의 태도가 다른 성격장애에 비해 강한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으며, 반면 분열성, 회피성, 글;고 강박성 성격장애는 자아의 태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극성 성격장애는 다른 성격장애와 달리 적극적 자기사랑(자신을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의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가 기분이 나쁠 때 나 자신에 대한 태도.

나의 기분이 나쁠 때 반사회성 성격장애에 서는 자아(무엇이든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고민하지 않고 그때그때 하는)의 태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 그림 3). 회피성 성격장애는 자기공정(나의 장점뿐 아니라 단점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과 적극적 자기사랑(자신을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태도)의 모습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계성 성격장애는 자기보호 (나를 가꾸고 개발하며 에너지를 쏟는 태도)의 모습이 가장 낮게, 그리고, 다른 성격장애에 비해 자기비난, 자기공격, 자기무시 하는 경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분이 나빠 지면 경계성 성격장애는 다른 성격장애에 비해 자기 공격성이 가장 커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극성 성격장애는 기분이 나쁠 때도 적극적 자기사랑이 약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이는 부정적인 것에 대한 과도한 긍정화의 시도인 것으로 보인다. 강박성 성격장애는 기분이 나쁠 때도 자기통제(일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 나 자신을 철저히 조절하고 감시하며 일의 정확성을 중시함)의 태도가 정적 상관을 보여 다른 성격장애와는 차이가 있었다.

* $p < .05$, ** $p < .01$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성격장애의 정도에 따라 대인관계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DSM-IV에 정의된 10개의 성격장애들이 대인관계 행동과 자기개념의 태도에서 어떠한 패턴을 보이고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SASB 모델의 측정도구인 SASB 검사와 성격장애검사(PDQ-4)를 실시하여 대인관계 행동패턴과 성격장애의 유형 및 수준을 측정하였으며, 성격장애의 총 수준 및 각 성격장애의 정도와 SASB 모델에서 제시한 24개 대인행동 유형 간 상관을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타인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무시하는 행동과 타인에게 부루통하고 적대적이고 단절된 반응, 자기비난, 자기공격/거부, 자기방치/무시의 행동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의 성격장애 수준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타인에 대한 긍정/이해, 적극적 사랑, 양육/보호하는 행동과 타인으로부터 개방된 태도와 반응적 사랑, 신뢰/의지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성격장애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자신에 대한 태도에서는 자기비난, 자기공격/거부, 자기방치/무시가 대부분의 성격장애에서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자기긍정, 적극적 자기사랑, 자기보호는 공통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반사회성, 연극성, 그리고 자기애적 성격장애를 제외한 모든 성격장애에서 24개의 SASB 모델 군집 중 기분이 좋을 때 자기공격/거부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러나 기분이 나빠지면 분열성과 경계성 성격장애를 제외한 모든 성격장애에서 자기 공격성보다 타인에 대한 공격이 더 높게 나타나는 공통점을 보였다. 10개의 성격장애는 모두 대

인관계에서 공격적이고 적대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격장애들 간에는 행동패턴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으며 어떤 성격장애에서는 고유한 행동패턴을 보이기도 하였다. 몇몇 성격장애에서 고유하게 나타나는 행동들도 있었다. 경계성과 의존성 성격장애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자유롭게 두며 하고 싶은 대로 놓아두는 행동(방임)’이 낮게 나타난다는 점이 공통적이며 다른 성격장애들과 구별되었다. 경계성 성격장애는 타인의 기분이 나빠진 관계에서 방임 행동이 낮다는 점에서 의존성 성격장애와도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경계성 성격장애군 집단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분리와 순종 사이에서 큰 갈등을 보인다는 Ruiz, Pincus, 그리고 Bedics(1999)의 연구결과와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다.

‘상대방과 관련짓지 않고 나만의 방식을 택하는(분리)’ 행동은 분열성, 분열형, 강박성, 편집성, 그리고 자기애적 성격장애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이들 성격장애들이 타인으로부터 자유롭고 분리된 행동패턴을 공통적으로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Benjamin(1996a)의 연구에서는 분리의 반응이 편집성과 자기애적 성격장애에서 나타났지만 분열성, 분열형, 그리고 강박성 성격장애에서는 나타나지 않아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의존성 성격장애는 유일하게 타인으로부터 분리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다른 성격장애들과 구별되었다. 타인의 기분이 좋음에도 ‘상대방의 욕구에 무조건 배려하고 양보하는 순종적인 반응’은 반사회성 성격장애에서 유일하게 낮게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성격 5요인 모델에 관한 연구(Costa & McCrae, 2002; Trull, 1992; Widiger, 1991)에서 반사회성 성격장애가

‘타인에 대한 낮은 동조성’을 보였던 것과 유사하다. 타인의 기분이 나쁠 때는 대부분의 성격장애에서 순종적인 반응이 낮게 나타났다.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고민하지 않고 그때그때 하고 나중의 일을 걱정하지 않는 행동(자율)’은 반사회성, 경계성, 연극성 등 B군 성격장애들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에 비해 분열성, 회피성, 그리고 강박성 성격장애는 자율이 낮게 나타나 B군 성격장애와 구별되었다. 타인에 대한 적극적 사랑, 반응적 사랑, 적극적 자기사랑은 연극성 성격장애에서 고유하게 나타나는 패턴이었다. 이는 연극성 성격장애가 다른 성격장애에 비해 대인관계의 접촉이 가장 활발하고 또한 사교성이 높아 타인에게 쉽게 접근하는 행동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연극성 성격장애는 기분이 나빠지면 타인에 대한 공격성과 적대적 행동으로 바뀌는 것이 특징적이다. 한편, ‘나 자신을 철저히 조절하고 감시하며 일의 정확성을 중요시하는 행동(자기통제)’은 강박성 성격장애에서 고유하게 나타났다.

A, B, C 세 성격장애 군에서도 각각 고유하게 보이는 행동패턴들이 있었다. A군에 속하는 성격장애는 타인에 대한 공격성이 높고, 다른 성격장애 군과 달리 타인으로부터의 분리된 반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리는 SASB 모델의 자율성 차원 즉, 타인으로부터 자유롭고 상대방과 관련시키지 않고 나만의 방식을 택하는 자율성이 두드러지는 것을 의미하며, 병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타인과 과도하게 분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Mahler(1975)가 제안한 분리-개별화 단계는 어머니와의 안정된 애착형성 이후에 나타나는 단계이다. 그러나 A군 성격장애에서 보이는 분리된 반응은 타인에 대한 높은 공격성과 적대적이고 단절

된 반응이 수반되어 나타나는 행동이며, 이는 정상적인 분리-개별화단계에서 보이는 것과 질적으로 다를 것으로 보인다. 즉, 타인에 대한 사랑이 결여된 채 분리된 행동만 발달된 양상이 A군 성격장애의 두드러지는 특성으로 해석된다. A군 성격장애에서 나타나는 타인으로부터 ‘분리’된 행동은 Costa와 McCrae(2002)의 5요인 모델 연구에서 ‘타인에 대한 낮은 동조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가능한 행동패턴으로 보인다. 분리는 자기애적 성격장애와 강박성 성격장애에서도 나타났다. 자기애적 성격장애는 타인의 기분이 나빠진 관계에서 분리되는, 즉, ‘상대방과 관련짓지 않고 나만의 방식을 택하고 알아서 하는’ 반응과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타인과의 공감능이 적고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한다는 점에서 가능한 행동패턴으로 해석된다. 강박성 성격장애는 주로 대인관계에서 인색하고 경직되며 감정표현이 매우 제한된 행동패턴을 보이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타인으로부터 분리된 반응 양상을 보일 수 있겠다. 분열성 성격장애는 타인에 대한 적극적 사랑/접근이 가장 낮고 상대방에 대한 긍정/이해의 태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요인 모델에 관한 선행 연구(Benjamin, 1996a; Costa & McCrae, 2002)에서 분열성 성격장애가 따뜻함과 사교성이 낮고 긍정적 정서가 낮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가능한 행동패턴으로 볼 수 있겠다. 분열형 성격장애는 ‘자신을 돌보지 않고 방치하거나 비현실적 공상 속으로 빠져드는(자기방치/무시)’ 경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5요인 모델 연구에서 분열형 성격장애가 높은 ‘공상’을 보인 점과 유사하다.

B군 성격장애, 그 중에서도 특히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다른 성격장애에 비해 타인에 대

한 공격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군 성격장애는 다른 성격장애와 달리 자율성이 높게 나타났다. SASB 모형에서 자율은 독립성(자율성) 차원에 해당되며, 무엇이든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고민하지 않고 그때그때 하고 나중의 일을 걱정하지 않는 행동으로 정의된다. A군 성격장애가 타인으로부터 과도하게 분리된 행동을 나타낸다면, B군 성격장애는 자신의 욕구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해결하려 하거나 만족지연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경계성 성격장애 집단의 경우 기분이 좋을 때와 나쁠 때 분열형 성격장애 집단과 정상인 집단에 비해 자기통제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uiz, Pincus, & Bedics, 1999). 그러나 Benjamin(1996a)의 연구에서는 B군 성격장애 뿐 아니라 다른 모든 성격장애에서 '자율'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경계성 성격장애는 기분이 좋을 때와 기분이 나쁠 때의 행동패턴이 가장 크게 변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자기 공격성이 가장 높고, 기분이 나빠지면 적극적 자기사랑과 자기보호의 모습이 다른 성격장애에 비해 가장 낮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선행연구(Benjamin, 1996a; Costa & McCrae, 2002)에서 경계성 성격장애가 높은 신경증을 보였다는 점에서 가능한 행동패턴으로 여겨진다. 연극성 성격장애는 다른 성격장애와는 달리 공격성이 가장 낮고, 타인에게 적극적인 사랑과 접근의 행동을 취하며, 적극적인 자기사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극성 성격장애는 SASB 모형의 친애성 차원에서 친애성 점수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데, 이는 부정적인 것을 직면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긍정화 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는 5요인 모형의 연구(Benjamin, 1996a; Costa

& McCrae, 2002)에서 확인된바 연극성 성격장애가 높은 외향성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보인다는 점과 비슷한 결과이다.

C군 성격장애는 다른 성격장애군에 비해 타인에 대한 공격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Benjamin(1996a)의 연구에서도 C군 성격장애는 타인에 대한 공격과 무시의 행동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의존성 성격장애에서 타인을 자유롭게 두는 방임적 행동이 낮은 것과 타인으로부터 분리가 되지 않는 행동유형은 다른 성격장애와 구별되는 특징이다. 의존성이 타인과 관련시키지 않고 나만의 방식을 택하는 경향(분리)이 낮은 것은 5요인 모형에서 타인에 대한 동조성이 높게 보이는 것과 유사한 의미로 설명된다. 타인을 자유롭게 둘 수 있는 방임 행동이 적은 것은 경계성 성격장애와 공통적으로 보이는 패턴이다. 강박성 성격장애는 기분이 좋거나 나쁠 때 모두 자기통제가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 기분이 나쁠 때 자기통제(자신을 조절하고 감시하며 일의 정확성을 중요시하는 행동)가 기분이 좋을 때보다 더욱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현상은 Benjamin(1996a)의 연구에서도 관찰된 바 있다. 강박성 성격장애에서의 자기통제는 5요인 모형 연구에서 강박성 성격장애와 관련이 있었던 높은 경쟁과 질서, 성실함, 성취지향성 등과 유사하다.

특정 행동패턴이 특정 성격장애를 잘 설명해주기도 하나 대부분의 행동패턴에서 많은 성격장애가 중복되어 나타났다. 공격성은 모든 성격장애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행동패턴이며, 공격성이 타인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향해 있는 점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SASB 모형에서 친애성 차원에 배열된 타인공격, 타인적대/움츠림, 자기공격은 대부분의 성

격장애에서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즉, SASB 모델에서 친애성 차원은 연극성 성격장애를 제외한 나머지 성격장애를 변별해주는데 큰 기여를 하지 못하였다. 친애성 차원이 성격장애들 간을 변별해주지 못한 결과는 대인관계 요인이 장애를 변별하는 데는 크게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사회적/대인관계에서의 증상보다 인지적/지각적 증상들이 경계성 성격장애와 분열형 성격장애를 더 잘 변별해준다는 보고가 있었다(Widiger et al., 1987). 그러나, 본 연구에서 몇 가지 성격장애들을 변별해주는 행동 군집들이 있었다. 타인에 대한 행동에서는 방임, 타인에 대한 반응에서 분리와 순종, 그리고 자신에 대한 태도(내사)에서는 자율과 자기통제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 군집들은 모두 SASB 모델에서 독립성(자율성) 차원에 해당되며, 이는 Mahler가 제시한 분리-개별화의 개념이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준다. 즉, 친애성 차원이 성격장애와 정상인을 구별해주는 중요한 변인이라면 자율성(독립성)은 성격장애들 간을 변별해주는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애착형성의 여부(친애성 차원)는 병리적 성격으로의 발달 여부를 변별해주고 개별화(자율성 차원)는 어떠한 병리적 양상으로 각 성격장애들이 발달되는지 여부를 변별해주는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선행연구에서는 오히려 자율성 차원에 비해 친애성 차원이 불안집단과 정상인군을 더 잘 변별해준다는 보고가 있었다(Erickson & Pincus, 2005). 분리-개별화 단계에서의 고착이 어떻게 각 성격장애로 발전되는지의 과정을 알기는 어려우나 외현적으로 볼 때 분열성 성격장애에서 보이는 타인으로부터의 분리된 반응과 의존성

성격장애에서 보이는 타인으로부터의 분리되지 못한 반응은 두 성격장애가 상반된 행동패턴임을 말해준다. 또한 분열성 성격장애에서 보이는 분리된 반응과 강박성 성격장애에서 보이는 타인으로부터 분리된 반응은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패턴은 같지만 두 성격장애의 역동은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질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자료에서는 성격장애 형성의 역동적 과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각 성격장애 대인관계 행동의 역동을 방법론적으로 접근하여 성격장애의 차이점들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대인관계 접근에서 볼 때 성격장애들 간에 공통된 행동패턴을 보이지만 그 정도에서는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또한 특정 성격장애에서의 고유한 행동패턴도 발견되었는데, 이는 대인관계 행동이 성격장애들 간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SASB 모델이 애착 이론에 근거하여 아동기 부모와의 관계와 성인기 타인 지각 및 자기 지각을 관련지어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러한 장점은 여러 선행 연구에서 검증된 바 있다(예컨대, Cassidy, 1995; Hudson & Rapee, 2002; Parker, 1981; Silove et al., 1991).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Benjamin(1996a)의 연구처럼 성격장애가 있는 사람이 지각하는 타인의 행동과 반응, 그리고 어릴 적 부모와의 관계를 연구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Benjamin이 주장하였던 행동의 상호작용 유형인 내사, 상반성, 상보성, 유사성, 대조성에서 각 성격장애들이 타인과 맺는 상호작용 방식이 어떠한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아동기에 부모와 맺었던 상호작용이 성인기 대인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발달하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여러 성격장애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행동패턴들이 각 성격장애마다 어떻게 다르게 기여하는지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또한 본 연구대상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격장애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성격장애들 간의 차이점을 뚜렷하게 드러내기 어려웠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Benjamin(1996a)의 연구에서 성격장애들이 보이는 SASB 행동코드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었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성격장애로 진단된 환자집단에 대해 대인관계 행동패턴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또 하나의 큰 제한점은 국내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도구를 사용한 점에 있다. 대인관계 행동을 구조적으로 측정한다는 점에서 SASB 검사가 성격진단에 유용한 도구로 알려져 있는 만큼 국내에서의 보다 체계적인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동인, 최말례, 조은정 (2000). 한국판 성격장애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예비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39, 525-538
- 김수임 (2003). SASB 모형의 내사측면에 나타난 경계선적 성격 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광배 (2000). *다차원척도법*. 서울: 교육과학사.
- 박지희 (2005). 사회적 행동의 구조적 분석(SASB) 모형에 나타난 경계성 성격특성의 여대생과 어머니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Alpher, V. S. (1996). Identity and introject in dissociative disorde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 1238-1244.
- Benjamin, L. S. & Wonderlich, S. A. (1994). Social perceptions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The relation to mood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 610-624.
- Benjamin, L. S. (1974). Structural analysis of social behavior (SASB). *Psychological Review*, 81, 392-425.
- Benjamin, L. S. (1984) Principles of prediction using structural analysis of social behavior. In R. A. Zucker, J. Aronoff, & A. J. Rabin (Eds.), *Personality and the prediction of behavior* (pp.121-174), New York: Academic Press.
- Benjamin, L. S. (1993). Every psychopathology is a gift of love. *Psychotherapy Research*, 3, 1-24.
- Benjamin, L. S. (1994). SASB: A bridge between personality theory and clinical psychology. *Psychological Inquiry*, 5, 273-316.
- Benjamin, L. S. (1995). Good defenses make good neighbors. In H. Conte & R. Plutchik(Eds.), *Ego defenses: Theory and measurement*(pp. 53-78). New York: John Wiley.
- Benjamin, L. S. (1996a). A clinician-friendly version of the interpersonal circumplex: Structural Analysis of Social Behavior (SASB).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 248-266.
- Benjamin, L. S. (1996b). *Interpersonal diagnosis and treatment of personality disorder*.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Benjamin, L. S. (1996c). Introduction to the special section on structural analysis of social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 1203-1212.

- Benjamin, L. S. (1997). Personality disorder: Models for treatment and strategies for treatment development.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1*, 307-324.
- Benjamin, L. S. (2000) SASB Intrex user's Manual for short, medium and long form questionnaires. University of Utah Press.
- Cassidy, J. (1995). Attachment and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In D. Cicchetti & T. L. Sheree(Eds.), *Emotion, cognition, and representation. Rochester symposium 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Vol. 6, pp.343-370). Rochester, NY: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Costa, P. T., Jr., & McCrae, R. R. (2002). Looking backward: Changes in the mean levels of personality traits from 80 to 12. In D. Cervone & W. Mischel(Eds.), *Advances in personality science*(pp.219-237). New York: Guilford Press.
- Erickson, T. M. & Pincus, A. L. (2005). Using Structural Analysis of Social Behavior(SASB) Measures of Self-and Social perception to Give Interpersonal Meaning to Symptoms: Anxiety as an Exemplar. *Assessment, 12*, 243-254.
- Florsheim, P., Henry, W.P., & Benjamin, L. S. (1996). Integrating individual and interpersonal approaches to diagnosis: The structural analysis of social behavior and attachment theory. In F. Kaslow (Ed.), *Handbook of relational diagnosis*(pp.81-101). New York: John Wiley
- Henry, W. P., Schact, T. E., & Strupp, H. H. (1986). Structural analysis of social behavior: Application to a study of interpersonal process in differential psychotherapy outcom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 27-31.
- Henry, W. P., Schact, T. E., & Strupp, H. H. (1990). Patient and therapist introject, interpersonal process, and differential psychotherapy outcom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8*, 768-774.
- Henry, W. P., Schact, T. E., Strupp, H. H., Butler, S. F., & Binder, J. L. (1993). Effects of training in time-limited dynamic psychotherapy: Mediators of therapists' responses to training.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441-447.
- Hudson, J. L., & Rapee, R. M. (2002). Parent-child interactions in clinically anxious children and their siblings.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1*, 548- 555.
- Humes, D. L., & Humphrey, L. L. (1994). A multimethod analysis of families with a polydrug-dependent or normal adolescent daughte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 676-685.
- Humphrey, L. L. (1986). Structural analysi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eating disorde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5*, 395-402.
- Hyler, S. E., & Rieder, R. O. (1987). Personality Diagnostic Questionnaire -Revised(PDQ-R). New York: Author
- Ichiyama, M. A., Zucker, R. A., Fitzgerald, H. E., & Bingham, C. R. (1996). Articulating subtype differences in self and relational experience among alcoholic men using structural analysis of social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

- 1245-1254.
- Kim, Y. & Pilkonis, P. A. (1997).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personality disorder subscales from the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9, 284-296.
- Klein, M. H., Wonderlich, S. A., & Crosby, R. (2001). Self-concept correlates of the personality disorder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5, 150-156.
- Leary, T. (1957). Interpersonal diagnosis of personality: A functional theory and methodology for personality evaluation. New York: The Ronald Press.
- Lorr, M., & Strack, S. (1999). A study of Benjamin's eight-facet structural analysis of social behavior(SASB) model.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5, 207-215.
- Parker, G. (1981). Parental representations of patients with anxiety neurosis.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63, 33-36.
- Pilkonis, P. A., Kim, Y., Proietti, J. M., & Barkham, M. (1996). Scales for Personality Disorders Developed from the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0, 355-369.
- Pincus, A. L., News, S. L., Dickinson, K. A., & Ruiz, M. A. (1998). A comparison of three indexes to assess the dimensions of structural analysis of social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70, 145-170.
- Pincus, A. L., & Ruiz, M. A. (1997). Parental representations and dimensions of personality: Empirical relations and assessment implic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8, 436-454.
- Pincus, A. L., & Ruiz, M. A. (1998). Structural analysis of social behavior(SASB): Circumplex analyses and structural relations with the interpersonal circle and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629-1645.
- Ruiz, M. A., Pincus, A. L. & Bedics, J. B. (1999). Using the Structural Analysis of Social Behavior(SASB) to Differentiate Young Adults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Feature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 13, 187 -198.
- Schaefer, E. S. (1965). Configurational analysis of children's reports of parent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9, 552-557.
- Silove, D., Parker, G., Hadzi-Pavlovic, D., Manicavasagar, V., & Blaszcynski, A. (1991). Parental representations of patients with panic disorder and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59, 835-841
- Sullivan, H. S. (1953).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Norton.
- Trull, T. J. (1992). DSM-III-R Personality disorders and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n empirical comparis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 553-560.
- Widiger, T., Frances, A., & Trull, T. (1987). A psychometric analysis of the social interpersonal and cognitive-perceptual items for the schizotypal personality disorder.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4, 741-745.
- Widiger, T. A. (1991). Personality disorder dimensional models proposed for DSM-IV.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 5, 386-398.

- Wonderlich, S., Klein, M. H., & Council, J. R. (1996). Relationship of social perceptions and self-concept in bulimia nervosa.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 1231-1237.
- Wonderlich, S. A., & Swift, W. J. (1990). Borderline versus other personality disorders in the eating disorders: Clinical descrip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9, 629-638.

원고접수일 : 2007. 10. 3.

게재결정일 : 2007. 12. 7.

Personality Patholog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the SASB Model

Eun-young Lee

Department of Psychiatry
Shinchon Sevrance Hospital

Soon-Taek Hwa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Yun-Jin J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sonality pathology and interpersonal behavior patterns and the characteristics of interpersonal behavior patterns of personality disorders(PDs). 458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PDs and interpersonal behavior were measured by the PDQ-4+ and the Structural Analysis of Social Behavior(SASB).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the total scores on the PDQ-4+ and some of cluster scores on the SASB Intrex. As being severe personality pathologies, actions of blame, ignore, and attack to others, reactions of sulk, recoil, and wall off to other behaviors, and behaviors of self-attack, and self-neglect to self were increased. Correlations between 10 scores of PDs on the PDQ-4+ and 24 cluster scores of the SASB Intrex and mapping on the Multidimensional Scaling revealed that all PDs except the histrionic PD showed higher levels of attack, ignore and blame behaviors to others, and lower levels of love/affirm, protect, and active love behaviors. The cluster A PDs showed tendencies of separation from others. The cluster B PDs showed the highest level of attack on others and self-emancipate and autonomous, and the cluster C PDs showed the lowest levels of attacking behavior among all clusters. Freeing, separating from others, submit, self-emancipate, self-control were unique factors that differentiate PDs from normals; these factors ranged in autonomy dimension in the SASB. Namely, autonomy wa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for differentiating the PDs. Result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nd follow-up studies were proposed.

Key words : personality disorder, interpersonal behavior, SASB